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도와주세요”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도움의 손길 요청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연중 활성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도 늘고 있다.

지난 1개월간 본지 창구에 접수한 성금내역을 보면, 김중현 본지 조사위원회 고문(자동이체로 20만원,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강수동 이사장 20만원, 박노현 용어섭

유주식회사 대표이사 10만원씩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한명숙 청풍삼계탕 대표 10만원, 권혁주 포천감리교회 목사 10만원은 처음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며 성금을 맡겼다.

또 박병식 이동맛갈비공장 대표 5만원, 강옥자 늘봄꽃화원 대표 2

만원, 류재철 1만원,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임 김한성 회장 등 회원일동이 10만원씩 매일 성금을 맡기고 있다.

본지는 이처럼 고마운 정성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의 아버지 전봉수씨에게 본지 창구에서 30만원

을 최두열 전무이사가 전달하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가 완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아달라고 부탁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각급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본지 이상일 조사위원장이 대경중학교 송태식 군 등 3명에게 각 20만원씩 60만원을 전달하고 지금은 비록 남의 도움을 받지만 훌륭하게 성장하게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북중학교 황해지 학생들 3명에게 각 20만원씩 6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영평초등학교 변예슬 학생 등 3명에게 각 10만원씩 3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는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분이나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031-542-15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이상일 조사위원장이 영평초등학교 학생 3명에게 전



본지 이상일 조사위원장이 경북중학교 학생 3명에게 성



본지 이상일 조사위원장이 대경중학교 학생 3명에게 성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백혈병으로 치료중인 어린이의

추천! 이야기 한마당 행복을 만드는 가정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한 가족이 있었습니까. 그 집은 가족 간에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들끼리도 서로 불화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서로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선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두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집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집 아들이 부엌에서 비싸게 보이는 도자기를 잘못 건드려 깨지고 말았습니다. 방문한 가족들은 서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 비싼걸, 이

제 한바탕 하겠구나. 어머니는 저걸 치우려면 이제 저 애는 혼나겠구나. 하지만 아들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도자기에 넘어 지기 쉬운 자리에 올려놨었구나. 미안하다 놀랐겠구나.”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오, 내가 그 자리가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미처 치우지 못해 내가 미안하오” 아들은 “아닙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자 방문한 가족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비싼걸 깬데 화가 안나십니까?” “화가 왜 났니까? 화를 낸다고 깨진 도자기가 원상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순간 저희는 도자기보다 훨씬 값진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귀한 것도 행복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행복도 불행이 될 수 있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문의 011-342-5834)

사건사고

수억대 不法 게임기 제작업체 적발

H전자, 바다이야기 게임기 불법 수출 유통

포천경찰서(총경 김귀찬)는 8월 25일 오후 7시경 수억대의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해 전국 대도시에 불법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포천경찰서에 의하면 적발된 불법 게임기 제작업체인 H전자는 포천시 가산면 방죽리 510-1에 100평 규모 공장 3개동(연면적 300평)을 임대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 8월 24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수억대의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해 왔다.

또 H전자는 게임기제작 시설을 차려놓고 등급 받지 않은 불법사행성게임기(바다이야기 등)를 제작해 왔으며 바다이야기의 경우 수도권은 1대당 90만원, 지방의 경우 95만원선의 가격으로 중간 유통단계까지 거처 집조적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관내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게임기를 납품하는 업자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내에서 불법게임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제작된 게임기는 화물차를 이용해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잠복근무 끝에 지난 24일 오후 7시경 불법 제작된 게임기를 옮기려는 화물차를 발견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금주산 관모봉 등산객 위한 이정표 설치

포천시 영중면사무소와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



지난 8월 22일 포천시 영중면사무소와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주산 줄기인 관모봉(冠帽峯) 등산객을 위하여 이정표를 설치했다.

지난 8월 22일 포천시 영중면사무소와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주산 줄기인 관모봉(冠帽峯) 등산객을 위하여 이정표를 설치했다.

영중면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모봉 등산로에 이정표를 설치하여 이곳을 처음 찾는 등산객들도 쉽게 산을 오를 수 있게 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등산객이 관모봉을 등산하는데 이정표가 있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산행은 영중면 양문3리(햇골)에서 출발하여 정상인 관모봉(冠

帽峯)에서는 영중면과 일동면, 이 동면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으며 다시 내려오는 양문공단 뒤(독지골) 또는 성동리(파주골), 일동면 수입리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이다.

이인화 영중면장은 앞으로도 관내 관음산(영중면 성동4리 파주골)에 등산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영중면을 방문하여 쉽게 등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시인의 窓

첫 사랑

박숙자 (포천문인협회회원)

바닷가 모래사장엔 너의 이름을 쓴다

돌아오지 못할 이름 석 자 파도가 달려와 흔적 없이 지운다

내 가슴에도 파도가 달려와 너를 지울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흔적 없이 잘도 지워지는데, 보이지 않는 그리움을 어찌란 말이나

오늘도 내 가슴에 잊지 못할 이름 석 자 도장처럼 새긴다.

사랑의 사파나루는 토양에서 자라고 그 열매는 사람의 실 속 체온으로 여물어 가는 걸 어쩌랴. 누구나 첫사랑의 열병을 꽃물로 다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리라는 그 첫사랑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휴화산이다. 저마다 아련한 총동과 자극으로 분출되는 붉은 불꽃이다. 이미도 그처럼 뜨거운 꽃물이 달밤의 보릿대를 누이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첫사랑의 기억들을 달콤한 추억으로 포장하여 침실 깊숙이 묻어두어 살아간다. 아직 사랑의 묘약은 약국에 없다. 안 익 수(시인)

*용역자의 세상읽기 15

아버지의 마음

입추와 함께 질풍 같은 폭우가 여름의 흔적을 지워내려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기운을 드리우고 있는 8월에 한 낮의 태양은 곡식을 여름에 하느라 열심히 땀 흘리고 있었다. 배움보다는 먹고사는 일이 우선이었던 1960년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이제는 노장의 차량 수리박사가 되어버린 어느 카센터 사장님은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차의 내부를 닦고 조이면서 땀을 흘리고 계신다.

그분에게는 비 오듯 흘리는 땀이 힘든 노동이 아닌 보람을 느끼는 몰방울일 뿐이었다. 업무상 들른 사장님의 작은 사무실 안에는 손때 묻은 옛날 물건들이 가득했고 책상 맨 앞쪽에는 가족사진이 담담하게 놓여 있었다. 사모님과 사장님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드님이 양쪽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든든해 보였다. 호기심에 “사장님 아드님은 박사 같아요?” 했더니 사장님께서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식 자랑을 하신다. 보건복지부에 5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석사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뿌듯했던 졸업식을 떠올리셨다. 두툼한 논문과 졸업장 그리고 합격증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삼키고 “하느님 아

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셨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한쪽에 허전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다. 장성한 옆집 아들이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어머니 아버지 빨리 오세요!” 하면서 반기는 모습이 무척 부럽다고 하신다. 요즘에 장성한 자식들은 어쩌다 함께 외출을 하려고 하면 반색을 하면서 타당한 이유로 도망쳐 버리려고 하니 마음속엔 자식사랑이 가득하시면서 언제나 과묵한 업무로써 자식교육을 해 오신 사장님은 가끔은 다정다감하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나누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신다.

아버지로서 훌륭하게 잘 자란 아들에게 다정다감한 모습을 바라는 것이 욕심일까? 가을이 오면 지금의 더위를 잊어 버리듯 어서 빨리 애교 많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1% 부족한 사장님 마음에 풍성한 가을을 선사하기를 기대해본다.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 모집공고

포천신문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사취재 후 제공 및 제보 등을 지원하는 봉사과 동시에 기자단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사 격
 1. 포천신문에 보도할 기사작성 및 기사제보 할 능력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초·중·고등학교 현 어린이회장·학생회장 또는 회장을 역임한 학생
 3.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의 자녀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위의 자격을 갖춘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모집인원 : 00명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포천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학교장 추천서 1부(형식제한 없음)
- ◆모집마감 : 2007년9월28일 (금) 17:00까지
- ◆접 수 처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주)포천신문사
☎ 031-542-1506~7, FAX 031-541-9117

